

韓國、日에 응석만 부린다

文藝春秋 「挺身隊대담」 내용

다행히 日本의 중합을
간지 3월호에 실린 「사
죄할수록 나빠지는 日韓
관계」라는 제목의 대담
중 주요내용.

△냉전후의 日韓관계
는 때면 한국의 「사죄요
구와 일본의 「사죄」의
반복으로 일본의 反韓
嫌韓이 증대했음을 뿐이
다. 정상회담(지난 1월
의 韓日정상회담)의 가
장 중요한 의제가 위안
부의 보상문제라는 것은
정말 현실적인 일이다. 식
민지지배를 받았다는 원통
한 생각은 우리도 안다.
그렇지만 그것은 魏朝원
의 문제일 것이다. 그것
을 물건이나 돈의 외교
교섭 차원으로 끌어내려
서 좋은 것이냐.

할 수 있고 그들(일본)은
곧 사죄, 양보한다는 일
종의 테크니크를 한국측은
중요내용.

하고 있는 유구는 만약
한국이 식민지로 되지
않았다면 발전했을 부
분을 일본이 배상해야
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
있다. 발전가능성이란 계
량불능의 것으로 한국측

의를 잃은 행위에 대해
확실히 異議를 제기해야
한다.
△분명히 말하지 않고
「귀찮으니가 응석과 해
두자는 것이라면 이것
말을 한국을 모욕하는

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
관한 일본측과 대한민국
간의 협정의 제2조에
는 「兩國의 국민 그 국민
의 권리와 이익 및 그 국
민간의 청구권에 관한
문제가 완전하고도 최

차관을 실행로 유용하게
써서 「한강의 기적」으로
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룩
했다. 차대통령은 조약
체결 11년후인 76년 12월
에 56페이지에 가까운
「청구권 자금배서」를 발
간했고, 그 가운데 55
60페이지에 걸쳐 정용자
의 분배를 일괄표로
발표했다. 그러므로 종
군위안부였던 분들의 보
상도 본래 한국정부가
해야 하는 것이다. 일본은

하는 데에서 한국의 「응
석」의 구조가 생겨난 것
이다.
△차(대통령) 시대의
한국에는 금지가 있었
다. 차씨에게는 한국을
흔들한 나라도 만들고
싶다는 열의와 계획이
있었다. 日本측도 그 열
의에 공감을 해서 꽤 협력
했다. 그러나 쑨원과 盧
씨에게는 차씨같은 비전
이나 열의가 느껴지지
않는다. 차씨의 유산으로
그 이자나 따져서는 인
상이다. 그런 비전이 없
기 때문에 「일제 36년」
이라는 과거가 사용되는
것이다. 그것은 일본의
마타른 현상이다. 과거
문제 이외에는 무역불균
형과 기술이전에 관한
유구뿐이다.

92.2.11 車

책상대리며 큰소리로 위협만 일삼아 頂上會談 「위안부보상」의 제채택 한심 입이로만 反日하며 중대한 일의 기준

지니게 됐다는 느낌이
드나. 실제로 이번의 미
야자와(宮澤喜一) 수상
전변의 가이후(海部俊
樹) 수상, 또는 北韓에 갔
던 가네마루(金丸信次
郎)도 간단히 사죄해
버렸다. 그런 일본 정치
가의 안이한 자세가 한
국측에 그런 교섭술을
지니게 했다.

의 논리에 따르면 일본
측은 무한대로 보상해야
하게 된다.
△미야자와 수상의 訪
韓 때 한국대통령은 천황
(日王)의 벗친인형을 태
웠고 일본대사관에 계란
을 던졌다. 대사관은 일
본의 일일이고 천황은
일본의 상징이다. 정정
외교관계를 유지하려 한
다면 그처럼 분명히 예

있는 없다. 재일한국인
청운문제는 종군위안부
문제는 그들에 대해 지
금까지 한국정부가 얼마
나 관심을 갖고 동정을
표시했는가. 거의 제로
(零)일 것이다. 그것을
자기네의 형편에 따라
이용하는 것은 너무 심
하다.

△65년에 체결된 「재
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
됐고 朴正熙대통령이 이
이미 청구권자금을 지불
했으니 그것을 피해자
들에게 어떻게 배분할
것이냐는 한국의 주권에
속하는 것이다.

△그런데도 한국정부
는 일본에 보상한다고
유구하고 있다. 일본과
피해자가 직접교섭토록
하겠다는 것인데 自國
이 맺은 조약을 간단히
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
무구하다는 愚考다.

△한국이 일본에 제기

한

한

한

한

한